

장애인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신문보도 분석: 빅카인즈 뉴스 데이터를 중심으로

송경재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연구교수)

1.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장애인

20세기 인터넷의 등장은 인류에게 정보의 중요성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정보혁명의 편리성을 동시에 알려주었다. 1993년부터 일반인에게 상용화된 인터넷은 짧은 기간 내에 인류의 삶과 문화 전 영역을 새롭게 재규정하고 있으며, 이제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으면 오히려 불편한 사회로까지 되었다. 그만큼 정보통신기술은 인류의 삶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이에 캐나다의 사회과학자인 아나벨 퀘엔하세와 베리 웰만(Anabel Quan-Haase and Barry Wellman)은 정보통신기술로 인류는 초연결 사회(hyper-connected society)로 진입했다고 까지 평가하고 있다.¹⁾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로 연결된 초연결사회는 네트워크를 통해 사람-사람, 사람-사물, 사물-사물이 통신하여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다.

이와 같은 급격한 정보혁명 과정에서 21세기 초부터 시작된 지능정보기술의 발전과 기존 산업, 서비스의 융합에 대한 기대감은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변화가 단순히 생활 영역이 아닌 산업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그 핵심적인 변화의 기술을 지칭하여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은 향후 세계가 직면할 화두로 ‘4차 산업혁명’을 제시하였다.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융합되는 모든 산업이 가져올 세계 경제 변화를 예견하였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가 지난 산업혁명과 달리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은 모든 국가, 모든 산업 분야에서 이

1) Andrew Chadwick, *Internet Politics: States, Citizens, and New Communication Technologies*,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루어지며 결국 정치·경제·사회·문화에 대한 영향력이 과거와는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견했다.²⁾ 그리고 변화는 기존과는 한 단계 진일보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등장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에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과 함께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3D 프린팅, 로봇공학,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 여러 분야의 신기술과 결합되어 사회 전반의 스마트화·정보화가 가속화되는 네트워크 사회라고 지칭할 수 있다.

이와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등장은 전통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의 소외자라고 평가받던 장애인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장애인에게 정보기기의 이용은 일종의 장벽이 존재했다. 특히, 신체적인 장애가 있을 경우 모니터를 보거나, 자판을 두드리거나, 마우스를 이동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정보불평등이 야기되고 정보접근성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등장은 전통적인 장애인 정보격차(digital divide)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등장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과 로봇, 생명공학, 나노공학 등의 발전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신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어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정보기술 혁신을 포용하는 정도가 국가 사회 발전의 주요 척도가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이러한 관심은 주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공지능 로봇의 등장에 따라 장애인에 특화된 케어로봇, 스마트 지팡이(Smart Cane)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매년 1월 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는 소비자기술협회(CTA : Consumer Technology)가 주관해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제품 박람회인 ‘국제전자제품박람회’가 개최된다. 국제전자제품박람회는 우리나라에서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로 더 잘 알려진 박람회이다. 1967년 뉴욕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성장을 거듭하며 세계 최대의 가전전시회로 성장했다. 이 CES에서 최근 화두는 이른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이다. IoT(사물인터넷)과 드론, 자율주행차 등도 화제를 모았지만 2016년 이래 꾸준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디지털

2) 클라우드 슈밥, 송경진 역, 클라우드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새로운현재, 2016.

헬스케어와 장애인 관련 제품들이다.

실제로 CES 2018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오캠(ORCAM)의 오캠 마이아이 2(ORCAM MyEye 2)는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 장애인에게 인공 시각(artificial vision)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디링(The Dring)의 스마트 지팡이는 스마트 홈과 연동되는 단순 추적과 안전기기를 통합한 제품이다. 스마트 지팡이에는 센서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모듈이 손잡이에 장착돼 있어 위치를 추적하고 이용자가 넘어질 만한 곳에 있으면 경고하거나 그 지역을 벗어나도록 유도하며 지팡이나 사용자가 넘어지면 전화나 문자, 이메일 등으로 주변인에게 연락하는 기능을 탑재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혁신적인 정보통신기술 발전이 사회적 약자 특히 장애인에 미치는 중요한 변화에 주목하여 한국에서의 관심도를 언론보도 건수로 측정하여 관심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시험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준비되었다. 기실 주요 선진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이 산업과 경제적인 변화만이 아닌 삶의 변화에 주안점을 두고, 특히 장애인 삶의 질의 변화까지 고려한 새로운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4차 산업혁명 일반에 대한 논의에만 한정되어 장애인의 적용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활용 문제는 아직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4차 산업혁명이 단순히 사회경제적 변화가 아니라 장애인복지와 사회참여와 자립을 확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언론의 인식전환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준비되었다.

II. 분석 방법론

분석을 위한 방법론은 국내 주요 언론뉴스 빅데이터 플랫폼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BIG KINDS)를 이용한 뉴스검색과 분석결과 시각화를 시도했다. 빅카인즈는 종합일간지, 경제지, 지역일간지, 방송사 등을 포함한 최대 규모의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접목해 만든 새로운 뉴스 분석 서비스이다. 빅카인즈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 53개 매체의 약 6천만건 뉴스 콘

텐츠를 구축한 명실상부한 뉴스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³⁾

빅카인즈는 검색서비스와 함께 형태소, 개체명, 연결망 분석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기본적인 서비스인 뉴스검색과 연결망 분석을 시도하여 4차 산업혁명과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가진 뉴스생산의 추이와 특징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분석기간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한 2017년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의 신문사 뉴스를 대상으로 했다.

다음 분석대상 언론은 빅카인즈 검색이 가능한 11개 종합일간지와 8개 경제지를 대상으로 했다. 종합일간 중앙지는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이고 경제지는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헤럴드경제를 선정했다.

세부적인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대상기간 동안 장애인과 연관된 뉴스를 추출하여 관계도 분석과 연관어 분석을 통해 2년 동안 장애인 관련 뉴스의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이고 주요 논제는 무엇인지를 확인할 것이다. 둘째, 세부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CES를 키워드로 입력하여 장애인과 연관된 뉴스를 추출하고 주요 뉴스의 내용을 파악하고, 연관어를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로 도식화하여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장애인과 연관된 신문사 보도의 추세를 분석하고자 했다.⁴⁾

Ⅲ. 분석

1. 4차 산업혁명과 장애인 관련 뉴스 분석

먼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장애인"에 대한 뉴스 검색 결과는 51,861건이었다. 2017년은 20,732건, 2018년은 23,653건이었고 2019년 4월까지 7,476건이었다.

3) 한국언론진흥재단. <https://www.bigkinds.or.kr/>

4) 워드 클라우드는 빅데이터 분석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글에서 언급된 핵심 단어를 시각화하는 기법이다.

추출했다. 그리고 <그림 3>은 연관어 분석으로 검색한 뉴스와 연관성(가중치, 키워드 빈도수)이 높은 키워드를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것인데, 그림에서도 확인되지만 보건복지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패럴림픽 등이 주요한 뉴스 주제어로 도출되었다.

정치인과 보건복지부와 장애인 관련 뉴스가 연관되어 연결되는 것은 최근 장애인 관련 논란과 장애인 등급제를 둘러싼 신문뉴스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해찬 정당 대표는 2018년 12월 장애인 비하 논란으로 뉴스에 오르내리면서 관련 뉴스가 증가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기존의 6등급의 장애인 등급을 2가지 형태로 구분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했고, 이와 관련한 장애인 단체와 정치권, 보건복지부 간의 논쟁이 언론에도 그대로 투영된 것이다. 그리고 2018년 평창 패럴림픽 기간 동안의 많은 뉴스 생산이 분석에서도 반영되어 연관어 분석에서도 큰 비중이 있게 워드 클라우드가 도출되었다.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장애인”을 검색어로 입력하여 도출한 연관 뉴스는 2017년 177건, 2018년 230건, 2019년 48건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 관련 뉴스가 증가했다. 그러나 비록 2019년은 4월까지의 데이터이지만 1년의 1/3이 지난 시점임에도 48건에 불과해 관련 뉴스가 줄어들고 있음을 알려준다. 주요 신문사별 뉴스 기사를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종합일간지는 전반적으로 두 검색어로 도출된 관련 뉴스량은 적었다. 가장 많은 뉴스를 생산한 신문사는 서울신문이 23건이었고 경향신문과 내일신문이 각각 21건이었다. 그리고 국민일보가 1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경제지의 경우 상대적으로 뉴스량이 많았는데, 이는 4차 산업혁명이 주로 경제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많이 되고 있어서 뉴스생산량 자체가 종합일간지에 비해 약간 많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머니투데이가 7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시아경제가 62건으로 다른 경제지나 종합일간지에 비해 현저히 많은 뉴스량을 보여주고 있다.

< 표 1 > 4차 산업혁명과 장애인 검색결과(2017년~2019년 4월 30일)

종합일간지		경제지	
경향신문	21		
국민일보	19		
내일신문	21	매일경제	31
동아일보	8	머니투데이	78
문화일보	6	서울경제	15
서울신문	23	아시아경제	62
세계일보	13	아주경제	33
조선일보	4	파이낸셜뉴스	20
중앙일보	17	한국경제	20
한겨레	13	헤럴드경제	40
한국일보	11		

다음으로 살펴본 것은 연관어 분석으로 “4차 산업혁명”과 “장애인”을 검색한 뉴스 중에서 연관성(가중치, 키워드 빈도수)이 높은 키워드를 시각화하였다. 분석 결과 장애인과 연관된 뉴스는 인공지능이 가장 연관도가 높았으며, 사물인터넷, 일자리, 빅데이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인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이 장애인 케어가 가능하며 향후 비전있는 사업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그림 4 > “4차 산업혁명”과 “장애인” 뉴스 연관어 분석결과



분석을 보다 엄밀하게 진행하기 위해 “장애인”과 “4차 산업혁명” 검색 뉴스 중에서 2019년 4개월 동안 뉴스 결과를 추출했다. 뉴스는 총 48건이다. 이 중에서 정부부처 일정, 동정, 비연관 뉴스 단순 검색 등을 데이터마이닝을 한 결과 23건의 뉴스가 도출되었다. 이는 최근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논의에서 장애인과의 연관성이 높은 분야가 증가하면서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뉴스량이 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표 2 〉 2019년 뉴스중 4차 산업혁명과 장애인 검색결과(2019년 4월 30일 기준)

일자	신문사명	구분	제목
20190425	문화일보	종합일간지	〈선생님 선생님 우리 선생님〉“드론 VR 갖춘 ‘환경교실’ 만들어 진로설계도 ‘진화’ 시켰죠”
20190425	헤럴드경제	경제지	대전 유성구, ICT기반 복지공동체 브랜드 ‘돌봄플러스케어’ 사업 본격 추진
20190408	머니투데이	경제지	[전문]文대통령 "5G 왜 필요하지? 4세대, 결코 안 빠르지"
20190408	머니투데이	경제지	文대통령 "세계최고 5G 생태계 조성..한국이 하면 세계표준"
20190408	중앙일보	종합일간지	文대통령 "세계 최초 5G 상용화 국가 '5G 전략' 추진"
20190408	헤럴드경제	경제지	[전문]文대통령 "5G는 혁신성장 인프라 세계 최고 생태계조성"
20190408	아주경제	경제지	[전문] 文대통령 "세계 최초 5G 상용화, 제2의 벤처 붐 기회 될 것"
20190408	조선일보	종합일간지	文대통령 "세계 최초 5G 상용화 성공, 국가 차원의 5G 전략 추진"
20190403	한겨레	종합일간지	[왜냐면] 4차 산업혁명 시대, 장애인은 보이지 않는다
20190328	경향신문	종합일간지	현대자동차그룹, 4차산업 이끌 ‘미래 인재’에 10년간 1389억원 투자
20190325	아시아경제	경제지	은평구, 전국 최초 드로이드 및 교통약자 이동경로 지원모델 개발 추진
20190322	내일신문	종합일간지	장애인돌봄 등 서비스로봇 1만대 보급

20190322	내일신문	종합일간지	휠체어 편한 길 안내해드려요
20190218	동아일보	종합일간지	비용 年1조 아끼는 ‘전자문서 확대 법안’ 1년 넘게 국회서 낫잠
20190212	매일경제	경제지	하나금융지주, 4차산업혁명 펀드 3년간 1조 조성 발달장애인에 지속 가능한 일자리
20190114	아시아경제	경제지	정원오 성동구청장, 2022년까지 3만개 일자리 창출 도전!
20190113	세계일보	종합일간지	‘왕따 소년, 고졸 청년 백수’에서 ‘소통 영웅’이 된 사연 [궤도 밖 나의 길]
20190111	아시아경제	경제지	광주 남구 ‘생활밀착형 SOC 사업’ 50개 발굴
20190109	아시아경제	경제지	노현송 강서구청장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완성"
20190108	아시아경제	경제지	[2019 로펌 트렌드]①드라마, IT, 블록체인 새 먹거리 찾는 법조계
20190108	매일경제	경제지	[기고] 에어돔으로 제4차 농업혁명 촉발을
20190102	서울신문	종합일간지	[신년인터뷰] 김태경 시흥시의회 의장, “노인과 장애인, 아이와 엄마 같은 사회적 약자도 행복한 시민 되도록 최선”
20190101	한국일보	종합일간지	IoT 접목 가로등, 사고 방지 특허

23건의 관련 뉴스에서 가장 비중이 많은 뉴스는 대통령의 5G 상용화 관련 뉴스가 다수를 차지했다. 특징적인 것은 2019년 4월 3일자 한겨레의 “4차 산업혁명 시대, 장애인은 보이지 않는다.” 칼럼이다. 이 칼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서 장애인 관련 정책의 부재와 정책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 칼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발전은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 관련 산업에도 기회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이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IoT 접목 가로등, 휠체어 편한 길 안내, 장애인 돌봄 로봇 등 예년에 비해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뉴스 생산이 많아지고 있다.

2.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와 장애인 관련 뉴스 분석

다음, 구체적으로 해외에서 장애인 관련 신제품이 소개되고 있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와 장애인 관련 뉴스를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를 검토해 보았다. 먼저, “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 대한 뉴스 검색 결과는 1,089건(2017년 1월 1일~2019년 4월 30일) 이었다. 2017년 289건, 2018년 449건, 2019년 351건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에서 종합일간 중앙지의 뉴스량은 367건이었으며, 경제지는 618건이었다. 이 기간 동안 가장 뉴스량이 많았던 신문사는 아주경제가 218건이었으며 그 뒤를 해럴드경제 126건, 머니투데이 125건의 순이었다. 역시 경제지의 뉴스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제전자제품박람회”와 “장애인”에 대한 뉴스 검색 결과는 18건이었다. 2017년에는 7건, 2018년에는 9건이었으나 2019년에는 2건으로 줄었다.

연관어 분석 결과 전체 표본이 많지 않아 유의성은 낮다고 할 수 있지만 주로 CES에 참가한 기업들과 장애인과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스마트 글러브, 웨어러블 기기, 색각이상자, 재활훈련 등 4차 산업기술과 장애인 케어를 위한 신제품과 관련된 뉴스가 다수 발견되었다. 연관어를 워드 클라우드로 재구성하면 다음 <그림 5>와 같다.

< 그림 5 > “CES”와 “장애인” 뉴스 연관어 분석결과



마지막으로 CES와 관련된 국내 언론사의 뉴스 18건을 내용분석 하였다. 종합일간지와 경제지가 망라되어 있었으며 주요한 뉴스는 CES 기간 동안의 새로운 장애인 관련 혁신제품에 대한 소개의 기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관련 뉴

스는 CES가 1월에 열린 이후 1/4분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혁신에 대한 소개와 함께 국내기업의 동향을 주로 다루고 있다. 가장 많은 비중은 역시 신제품 동향으로 스마트글러브, 시각장애용 웨어러블 컴퓨터 등(머니투데이 20181221, 서울경제 20170422, 문화일보 20170420)을 다룬 뉴스였다. 그 중에서 장애인의 신체적인 어려움을 보조할 수 있는 웨어러블 컴퓨터 소개 뉴스가 다수였다. 이와 함께 기존 제품 개발과 장애인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다기능 전자제품의 개발 등도 뉴스에 소개되었다.

〈 표 2 〉 “CES”와 “장애인” 뉴스 내용 요약

일자	신문사명	구분	제목
20190329	서울경제	경제지	[2019 서울모터쇼]서울모터쇼 개막, 사상 최대 227개 업체 ‘미래 이동혁명’ 전시
20190218	머니투데이	경제지	“돌봄경제가 건설보다 일자리 30% 더 만든다”
20181221	머니투데이	경제지	[단독]삼성전자, CES서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 첫 공개
20180515	아주경제	경제지	삼성 패밀리허브로 인간공학디자인상 ‘그랑프리’ 받아... “사용자 중심 냉장고”
20180116	국민일보	종합일간지	美 ‘AI’ 주도, 日 中 ‘로봇’ 두각 CES서 드러난 4차혁명 경쟁구도
20180115	한국일보	종합일간지	삼성전자, 가장 잘 하는 기술로 사회 공헌
20180112	한국일보	종합일간지	[CES 2018] 코맥스 “아마존, MS 직접 만나 협업 타진 가장 큰 성과”
20180108	한국일보	종합일간지	시각장애인이 주인공인 영화 ‘두 개의 빛’ 조회 수 2000만건 돌파
20180103	중앙일보	종합일간지	피부상태 보는 AI사진기, 앞 사람만 듣는 스피커
20180102	한국일보	종합일간지	삼성전자 C랩 혁신 아이디어 올해 CES도 열린다
20180102	중앙일보	종합일간지	목에 걸면 360도 촬영하는 카메라 CES 가는 삼성 C랩 스타트업

20171227	아주경제	경제지	삼성전자, 새해 신제품 스마트 TV, 시청각 장애인 접근성 대폭 강화한다
20170602	머니투데이	경제지	웨어앤케어 네오펙트, 재활솔루션 기부캠페인 성료
20170422	서울경제	경제지	만지면 정보가 다보여 눈길 잡는 시각장애용 웨어러블
20170420	문화일보	종합일간지	원격의료 규제탓 병원연동 홈케어 제품 판매 난항 국내선 손뭍쓰는 ‘스마트 글러브’
20170420	서울경제	경제지	만지면 정보가 다보여 눈길 잡는 시각장애용 웨어러블
20170122	한국일보	종합일간지	스마트폰 10년 “SW가 블루오션이다”
20170122	한국일보	종합일간지	스마트폰 10년 ‘모바일 라이프’를 재설계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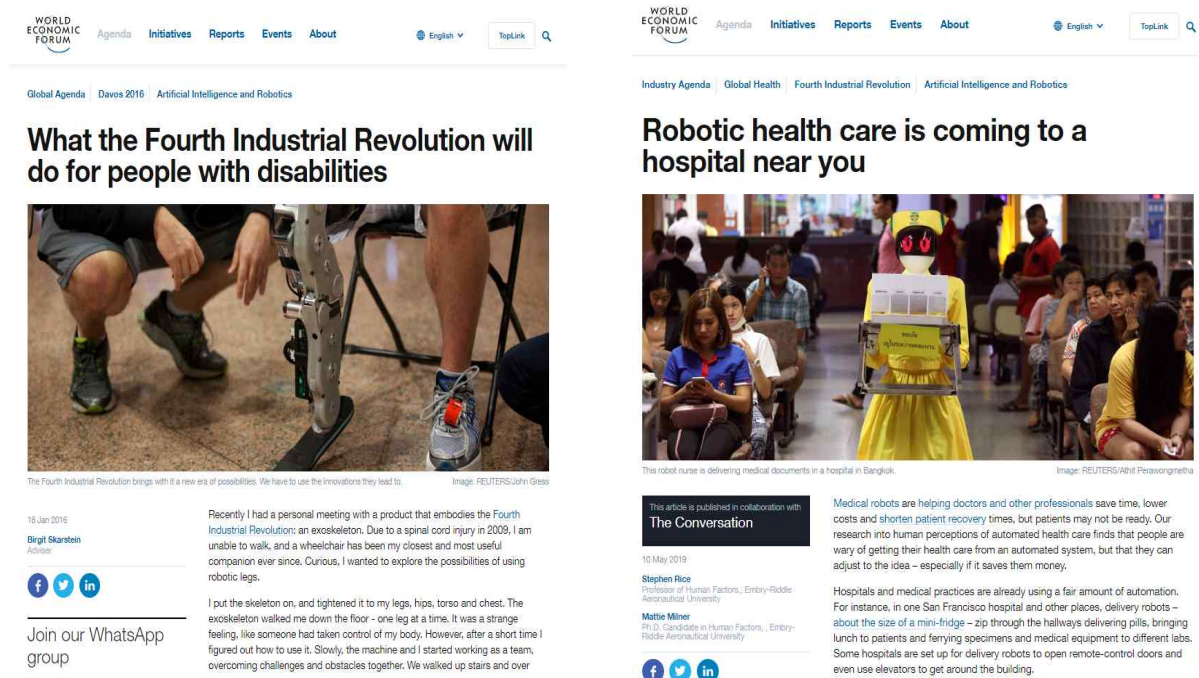
IV. 요약 및 함의

이상, 2017년 1월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장애인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언론뉴스를 분석한 결과, 해외에서의 다양한 움직임과는 다르게 아직 국내에서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장애인 분야로의 관심은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2016년 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서도 가장 두각을 나타냈던 것은 헬스케어 분야였고 일부 제품이 혁신상을 받으면서 장애인 관련 분야가 4차 산업혁명의 수혜가 될 것을 기대했으나 아직 국내에서의 뉴스량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CES만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진전은 노인,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 활용의 신서비스 등장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에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에서는 인공지능과 로봇을 이용한 장애인 관련 제품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아직 한국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의 담론이 경제성장이나 혁신분야에 한정되어 다양한 차원에서의 응용까지 확대되지 못한 감이 있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주요 종합일간지와 경제지에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장애인, 노약자 등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전환점이 될 것이다. 기존의 특수한 제품의 개발과 설계라는 한계로 인해 낮은 시장성 등의 어려움이 존재했던 상황에서 딥러닝과 인공지능, 로봇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 케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기회요인이 될 것이다. 이에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 및 복지권의 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를 기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진행 중에 있다.⁵⁾ 이를 통해 보편적 권리로서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스마트 복지(smart welfare)의 실현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 그림 6 > WEF의 4차 산업혁명과 장애인 사회적 약자 관련 연구보고서



실제 가장 먼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전환을 주창한 세계경제포럼은 지속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장애인,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연구보고서와 칼럼을 주기적으로 게재하는 등 4차 산업혁명이 단순한 기술진전이 아니라 삶의 질을 개

5) 조영임·강석준·김남규·송경재·Altayeva, Aigerim·Giyenko, Andrey, ICT 패러다임 변화와 정보격차 종합계획 수립 방안 연구,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선하고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국내 언론에서는 아직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장애인의 삶의 변화와 미래의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논의와 고민은 부족한 감이 있다.

이상 시대적인 흐름의 변화와 국내 언론 뉴스와 관련한 분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아직 다수의 뉴스가 4차 산업혁명에만 한정되어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이 야기할 사회의 변화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 특히 본 보고서의 주제인 장애인 관련 분야 역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연구와 보고서가 발표되고 있지만 이를 번역하는 뉴스조차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특히 세계경제포럼은 장애인과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주제의 보고서가 계속 시리즈로 발표되고 있으나 아직 한국에서 이런 새로운 시도는 거의 소개조차 되지 않고 있다.

둘째, 그나마 생산되는 다수의 장애인과 4차 산업혁명 관련 뉴스도 아직은 소개차원에 머물러 있으나 2019년만 한정하여 뉴스를 분석해보면 점차 4차 산업혁명과 장애인 뉴스도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무엇보다 사회참여, 돌봄 로봇 등이 가시화되면서 장애인 관련 뉴스는 장기적으로 더 증가할 것이다. 이에 언론사들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시대적 변화에만 한정된 뉴스보다는 좀 더 사회적 약자, 장애인, 노령층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셋째, 아직은 낮은 수준이지만 4차 산업혁명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불편을 해소하여 사회적인 삶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뉴스화하여 사회적으로 관련 여론을 형성하는데 언론사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실 많은 언론사들은 지면의 한계와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장애인 뉴스를 다루지 못하는 것은 있다. 하지만 사회적 공기로서의 언론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장애인에 미치는 영향과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뉴스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